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25일 목요일 음 5월 5일 (12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호리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23℃, 낮 최고 기온은 24~27℃의 분포를 보이겠다.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and temperature rang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25) and sunset (09:05).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risk levels (Warning, Normal).

월드뉴스

흑인남친 사살되자 패스트푸드점 방화

여자친구 나탈리 화이트 체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사살한 후 벌어진 항의 시위 도중 근처 패스트푸드점 웬디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여성이 체포됐다.



카메라에 포착된 방화 용의자 나탈리 화이트.

이 여성은 사랑한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27)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룩스는 지난 12일 밤 애틀랜타의 웬디스 매장 앞에서 백인 경찰의 체포에 저항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사살됐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애틀랜타 풀턴카운티 보안관실은 23일(현지시간) 방화 용의자인 나탈리 화이트(29)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애틀랜타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사건이 발생한 웬디스 매장에 불이나 결국 건물은 전소했다.

경찰은 현재 화이트를 풀턴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트위터로 전했다.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의 보디캠 영상에는 브룩스가 '화이트'라는 이름의 여자친구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담겼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앞서 애틀랜타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화이트가 방화 용의자로 확인돼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목요일론



양상철 융합서예술가·문화칼럼니스트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올해 첫 신규 전시로 '미술관에 올림: 한국 근현대 서예'를 선보이고 있다. 서구문화의 패권 속에 서예가 빛을 잃고 있는 중에, 현대미술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단독 서예전시를 기획했다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예의 순수성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실이다. 오늘날 서예는 훌륭한 작가의 좋은 작품은 있으나 작가를 보충해 줄 시스템이 없고, 수요층을 연결해 줄 매체가 없다. 시장성 확보 문제는 작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고 예술의 존립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이런 실정에 서예를 현대미술로 인식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전시가 한편으로 보면 서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단초를 마련하는 전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미술관의 서예 전시가 서예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전시 설명 중에 "현대서예는 서예적 이미지에 집착함으로써 '읽는 서예'가 아닌 '보는 서예'로서의 기능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는 서예는 이미 현대서예의 트렌드다. 무엇을 볼 것인가? 서예는 원추형 모필(毛筆)로 문자를 쓰는 예술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문자의 조합인 문장은 문학의 영역이지 서예의 본질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서예가가 지극히 추구해 온 것은 필획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서자(書者)의 성정을 필획(筆劃)에 담아 정신성을 내함하느냐에 있었다.

의 특성을 잃는다는 것은 서예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3500여년 역사를 견인한 서예의 끈질긴 생명력은 필획의 특성을 찾고 미감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근자에 서예의 영향력이 쇠잔하여 흥미된 분위기 속에서 서예가들조차 용필을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서예 창작요소에는 크게 '붓을 다루고(用筆)', '문자의 모양을 만들고(結構)', '문장을 구성하는(布置)'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바쁜 용필법이 구사한 필획은 생동감 있는 동태로 다양하게 시각적 인상을 드러내므로 서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서예의 용필은 서예심미론 중에서도 예술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전통적으로 필획의 속(俗)됨을 경계해 왔다. 결국 용필

포스트모더니즘의 다변화된 의식이 순수의 일탈을 허용하고 끊임없이 대중과의 연결점을 찾게 하더라도, 필획의 심미적 특성을 간과해서는 서예의 가치를 오늘에 관통시킬 수 없다고 본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번 서예전이 대중성과 사회문화적 조류에 편승하면서, 서예사를 통틀어 관성적으로 지켜온 서예심미의 특수성과 순수성을 확인하는 면에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열린마당

올해 자동차세 연납 놓쳤다면 6월엔 꼭!



김소원 제주시 일도2주민센터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잠깐의 편안함과 사소한 이익 때문에 불의를 거부하지 못하고 청렴한 길을 포기하고 만다.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청렴이다. 민원응대나 업무를 처리할 때 우리는 무언가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 청렴은 우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이다.

부끄러움을 배우자



고수강 서귀포시 공보실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스캔들 기사나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 장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탈세, 투기 등 다양한 의혹과 문제가 제기 되지만 기사나 화면속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더라며 떳떳한 태도를 보이곤 한다. 우리 주변 일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등 흔히 찾을 수 있다.

청렴은 우리 내면에 부끄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부끄러움을 다룬 것들 보다 우위에 두고 산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불의의 행동이나 사소한 이익을 거부할 수 있고,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했더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행동을 후회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나를 바로 마주하고 반성할 기회라고 한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을 배우자. 부끄러운 나를 마주하고 드러내는 용기를 배우자.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꼭꼭 숨기고 거부하기만 하면 반성하거나 나아갈 수 없다. 부끄러움을 아는 공직자가 진정한 청렴의 가치를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제주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절세혜택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해당된다.

세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각각 연세액의 10%, 7.5%, 5%, 2.5%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해당된다.

자동차세가 수시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과세기간 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말소된 경우 등에는 수시납부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ARS납부(1899-0341),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덜고, 자동차세 성실 납부도 당부드린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편집인 이용곤 편집국장 조상운.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서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시민장의사.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 천주교묘지 책임 총관리> 사무실 : ☎ (064) 732-5200, 762-5316 H·P 010-3696-3172, 010-8661-6560

오리지널 딤채 The Original dimchae. 위니아 딤채 전품목 할인행사. 딤채는 각방마다 냉각기가 하나씩! 업계 유일 4by4 룸별 독립냉각. 하나의 딤채로 네대의 딤채를! (주)대유위니아 제주점 전시장: 제주시 북성로 27(삼도이동) T. 721-9095~6, 755-9095, F. 755-9096